

오리에찬

Vol. 09

2012. 3

Contents

- 02-03 Column
오리자조금, 또 한번의 도약이 필요한 때!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제언
- 04-07 현장스케치
오리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
한·중 FTA 오리산업 생존대책 간담회
- 08-13 오리자조금 2011 사업결산 & 2012 사업계획
- 14-15 오리전망대(2~5월 오리관측)
- 16-19 Duck Story in Media
- 20-21 파워 블로거의 추천 오리요리
- 22 Duck's World Topic
- 23 오리자조금 납부현황





이창호 오리자조금위원장
(한국오리협회장)

오리자조금, 또 한번의 도약이 필요한 때!

2007년 자체 거출금 5천만원과 정부보조금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했던 오리자조금 사업이 벌써 6번째 사업을 맞았다.

당시에는 오리산업이 한참 성장과 발전에 시동을 걸던 시기였고 이 때 시작한 오리자조금 사업이 일정부분 기폭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자조금의 전체 예산이 큰 폭 상향되고 소비촉진사업을 비롯하여 교육과 정보제공, 연구(R&D) 사업도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오리자조금사업이 임의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는 점이다.

오리자조금사업이 이렇듯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었다. 먼저, 오리자조금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을 중심으로 거출금을 분담, 자발적인 납부가 있었으며, 특히 계열유통업 회원과 부화업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조금사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곳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표를 실천한 점이다.

오리자조금은 현재 의무가 아닌 임의 자조금의 형태이다보니 사업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저비용 고효율 사업에 집중하면서 AI 등 여러 위기에도 오리산업을 든든히 지켜오고 있는 버팀목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 오리산업의 가장 큰 위기로 떠오른 한·중 FTA 협상을 비롯한 여러 대내외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국내 오리산업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자조금만큼 더는 임의자조금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년에는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과 한·중 FTA 대책 마련 등 시급하고 굵직한 사안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올해는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조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의무자조금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협의와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오리자조금사업이 국내 오리산업을 지키는 대들보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요리 · 제품 다양화 新성장동력 개발해야

과거 오리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장금'에서 유향오리가 등장하면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오리고기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쇠고기처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됐다.

주위에서 쉽게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볼 수 있게 됐고 TV홈쇼핑 채널을 돌리면 심심치 않게 오리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특히 오리고기는 한방에서도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방, 보양식으로만 여겨졌던 오리고기가 최근에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웰빙 음식으로 전혀 손색이 없어 여성과 노인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가서 막상 오리고기를 먹으려하면 한번쯤 망설일 수밖에 없다. 마리단위로 판매되는 행태로 인해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 모자라지는 않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 마리단위로 판매하다보니 가격도 다른 육류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타 육류처럼 g 단위로 따지면 저렴한 가격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는 아직까지 메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오리업계에서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 소포장 단위의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리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이다.

편중된 오리고기 소비문화 개선을

최근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훈제오리가 큰 인기를 끌면서 훈제오리 시장 위주로 소비시장이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훈제오리로 시장이 성장했지만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

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훈제오리 위주의 시장을 탈피해 보다 대중적이고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오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오리고기는 마리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보통 g(인분) 단위로 판매되는 소, 돼지고기와 비교할 때 같은 중량 가격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으나 마리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 생산에 주력

최근 식품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맛이나 품질보다 안전성이다.

오리업계에서도 보다 안전한 오리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최근 오리고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수입산 오리고기와 국내산 오리고기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노력 필요

한우, 양돈, 낙농업계를 보면 최근 자조금을 통해 소비자와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오리업계도 임의자조금을 통해 소비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오리업계와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조금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되길 기대한다. 🌈



김연화 오리자조금 부위원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FTA시대, 위기의 오리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오리 산업 체질강화... 경쟁력 향상 주력



박종수 충남대 교수



김만섭 모란식품 대표



서옥석 축산과학원 박사



오리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워크숍 현장.

최근 오리산업의 규모는 해마다 성장하면서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취약한 산업구조와 잦은 AI 발생, 불안한 수급상황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협회는 오리산업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짚어보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코자 지난 2011년 12월 13일(화), 대전 유성호텔에서 '오리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중국 오리산업 현황과 한·중 FTA 체결이 국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김정주 교수는 결과발표를 통해 "중국은 상시 사육두수가 국내의 53배, 오리육 생산량은 23배, 농가수는 무려 1,200배로 국내 오리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고 말하면서 농가의 손실보전과 함께 오리육 검역의 지역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그리고 국내 오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세이프 가드 강화, 고민감 품목으로 상향조정 등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정부의 협조도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사명 : 오리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부제 : FTA시대, 위기의 오리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 일 시 : 2011. 12. 13(화)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 주 최 : 한국오리협회 • 주 관 : 축산신문사
- 참석자 : (좌장)박종수 충남대 교수, (토론자)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서옥석 축산과학원 박사, 정정우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김만섭 모란식품 대표, 이우진 주원산 오리 대표



정 정 우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이 우 진 주원산오리 대표



김 연 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한편, 지정토론 시간에는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 과장을 비롯, 축산과학원 서옥석 前 과장, 모란식품 김만섭 대표, 주원산오리 이우진 대표, 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 정정우 지회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등이 참여, 각 분야별 오리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통해 현재 재고물량 적체, 시세 하락 등 부작

용을 양산하고 있는 수급상황을 하루속히 타개하는 한편, F1 종오리의 입식 근절 활동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생산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FTA 등 세계무역시장 개방시대를 맞아 오리업계 스스로 준비해야 할 문제와 정부와의 협력 사항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김 정 주 건국대 교수



노 수 현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서 옥 석 축산과학원 박사

사육두수 53배... 규모면 가장 위협적인 중국 협상제외 · 세이프가드 강화 등 대책 시급



길 경 민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

지난해 말 정부에서 한·중 FTA 협상을 본격 추진 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농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오리시장이자 생산국으로서 국내 오리산업과 현저한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가 수는 1,200배, 사육두수는 53배가 높은 실정이다. 가격 또한 국내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이 현실. 더구나 산업 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오리산업은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2월 22일(수), 농수축산신문 주관·한국오리협회 주최로 ‘한·중 FTA대비 오리산업 생존대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고, FTA협상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규모를 가늠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중 FTA 오리산업 생존대책 간담회 현장.

오리 사육농가의 사육기술 등 많이 발전한 부분도 있으나 사육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 또한 농가들 인식도 많이 낮은 편. 정부서 한·중 FTA 협상 추진을 공식발표했지만 농가들은 위험성이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전혀 인식 못하고 있음. 지금의 농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 앞으로 지회와 지부 활동과 정보교류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FTA의 위험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알릴 것.

FTA에 대한 정부 대책 역시 오리분야에는 거의 정책지원이 없는 가운데 몇몇 가지 정책은 농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

- 정정우 한국오리협회 부회장(사육분과위원장) -

국내 오리산업 성장의 배경에는 2000년 당시 중국이 상시 AI 발생국가로 분류돼 생육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음.

한·중 FTA 협상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검역문제를 지역화할 경우로 실제로 전면개방과

- 주 제 : 한·중 FTA 협상 체결시 오리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와 오리산업 생존대책 모색
- 일 시 : 2012. 2. 22(수) • 주 최 : 한국오리협회 • 주 관 : 농수축산신문사
- 참석자 :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좌장), 이흥철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김삼수 농협중앙회 가금특수팀장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 정정우 한국오리협회 부회장(사육분과위원장)



사진 왼쪽부터 정정우 오리협회 부회장,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 이흥철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사진 왼쪽부터 김삼수 건국대 교수, 김삼수 농협 가금특수팀장.

다를 것이 없을만큼 엄청난 파장이 올 것.

협회 차원에서도 한·중 FTA 협상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와 겸한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 의무자조금 사업 추진 등을 협회의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준비중에 있음.

농가들도 오리 관련 대책이 많지도 않은데 축사시설현대화나 직접지불제 등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 불만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만큼 정부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

-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 -

2050년에는 육류 소비량이 지금의 약 2배 이상으로 늘고 오리산업 역시 그에 비례하여 커질 것.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도입, 오리조합 육성, 수출시장 개척 등 다면적인 대책 수립 필요. 특히 상당히 취약한 가정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

- 김삼수 농협중앙회 가금특수팀장 -

규모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임은 확실. 그러나 사양방식이나 관리, 위생 등 여러 측면에서 국내에

비해 한참 낙후. 그러나 중국과의 FTA 체결이 곧바로 막대한 피해로 직결된다고만은 볼 수 없음. 오히려 막연히 피해상황만 추정해서 막상 뚜껑도 열기 전에 오리산업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역기능 조심해야 함. 또한 오리고기와 같은 고민감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저울할당관세를 늘리거나 셰이프가드를 강화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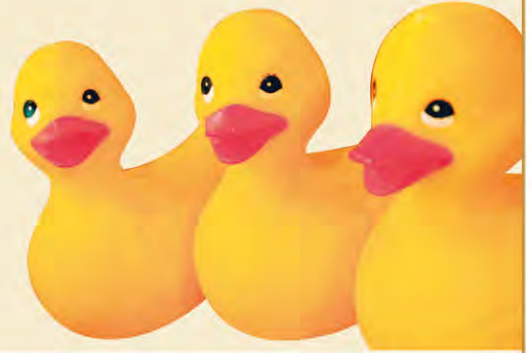
-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 -

오리사육농가들이 어려운 실정. 무허가 축사 문제와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정상적인 축사시설로 전환토록 정부도 계속해서 힘 쓸 것. 오리고기 품질과 안전, 위생성 지속관리 필요.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오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농가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 관리할 것. 축산계열화법 공포됐지만 1년 후 정식 시행될 것. 모범 사업자들에 필요자금 지원하고 계열 농가 애로사항 해결조정 방안 마련 등 농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음. 🌈

- 이흥철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서기관 -

2011년도 오리 자조금사업 추진사항



1. 2011년 오리자조금 사업 목표

***국내산 오리고기 안전성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 값싼 수입 오리육 수입 물량 증가 전망에 따라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 집중
- 국내산 오리고기 생산 및 유통투명화를 위한 유통 감시단 운영

***오리고기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2. 2011년 오리자조금 사업 성과와 반성

지난해는 연초부터 발생한 AI로 국내 많은 양의 종오리와 육용오리가 매몰처분 돼 상반기에는 극심한 물량부족과 시세 급등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법적으로 금지된 F1 오리 입식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물량과잉과 시세급락 현상이 이어지는 등 상반기와 하반기에 극과 극의 양상을 나타내며 흡사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한 해였다.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급악화 현상은 2012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재고물량이 대량 적체되어 오리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연초 발생한 AI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 개최가 연기·취소 되면서 자조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도 했지만 2007년 오리자조금 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가장 사업규모가 큰 8억원

(정부보조금 포함) 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회·지부 주관의 소비촉진 및 교육사업을 확대,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회·지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조금 사업 추진 이후 처음으로 F1 입식 근절 활동 및 오리고기 원산지 유통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오리고기 생산·유통 투명화 사업을 시행,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2011년 자조금 사업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난해 연초부터 발생한 AI로 당초 계획했던 자조금 사업이 취소·연기됨에 따라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사업의 질 저하 및 이월 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 소비홍보사업(항)

• 광고 (목)

사업명(세목)	사업추진내역
영상 및 지면 등 직접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대사 위촉 및 모델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 홍보대사 개그맨 박준형 위촉 • 직접광고대행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외부 부착물 광고, 무가지 이미지 광고,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p>: 서울·수도권 및 전국 버스 94대 외부 부착물 광고 실시('11. 15~'12. 1.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만부 제작·배포 - 무가지(메트로, 포커스) 이미지 광고 각 3회
온라인 홍보 프로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복 맞이 블로그 이벤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1. 8. 1 ~ 8. 7(7일간) - 대상 : 파워 블로거 11명 대상(네이버, 다음) - 행사내용 : 말복 맞이 퀴즈 및 오리고기 증정 이벤트

• 소비촉진 행사 및 홍보 (목)

사업명(세목)	사업추진내역
오리고기 소비촉진 관련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북이마라톤 대회 시 오리고기 시식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6. 19/7. 17 (2회) 남산 해오름극장 앞,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개최 • 대한민국 우수축산물브랜드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8~20. 삼성동 KOEX, 오리홍보부스 운영 • 안전축산물하마당 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9~20. 과천 경마공원, 시식회 개최 •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11~13. 수원 농진청 운동장, 시식회 개최
오리고기 시식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현물 협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방송 프로그램 오리고기 현물협찬 - 지역 및 중앙 단위 행사시 오리고기 증정용 선물세트 등 협찬 - 2011 상반기 사랑의 오리고기 후원(다인사랑나눔봉사회 300인분) - 2011 말복맞이 사랑의 오리고기 후원(국군함평병원 800인분, 중랑한울 지역정신건강센터 100인분) - 2011 가을맞이 사랑의 오리고기 후원(다인사랑나눔봉사회 120인분) - 2011 적십자 바자회 행사 오리고기 후원 외 다수
소비홍보용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중앙 9월호 별책부록 오리요리책자 제작 일부 지원 - 24p. 총 85,000부 제작 • 소비촉진 홍보용 달력 제작·배포 - 오리요리 수록 달력 제작 (1,600부)

(2)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항)

• 정보 제공 (목)

사업명(세목)	사업추진내역
자조금 거출 필요성 언론매체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사업 및 거출홍보 언론매체 정보제공 - 축산관련 전문 지 등 언론매체 정보제공 (총 9회)
자조금 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예찬 제5호 (2011. 3월호)~제8호 (2011. 12월호) 제작 - 평균 2,500부 제작, 회원 및 정부, 유관단체 배포 • 홍보 어깨띠, 전단지 등 제작
PPL을 통한 국내산 오리육 관련 정보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파 TV PPL 광고협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진짜 한국인의 맛 (5. 18. 수. 18:30) - MBS 해피트레인 (5. 25. 수. 17:10) - SBS 생활경제 (6. 24. 금. 11:00) - SBS 힐링캠프 (11. 21. 월. 11:30) - MBC 꾸러기 밥상 (10. 21. 금. 16:30) - SBS 생활경제 (11. 11. 금. 11:00) - SBS 생활경제 (12. 12. 월. 11:00) 등 다수. • SBS 라디오 정보센터 1분클릭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기 우수성 정보제공 (10. 24~11. 17) 총 18회
지역행사 및 대학축제 등 오리고기 우수성 관련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기자협회 불철 체육대회시 오리고기 홍보(4. 23. 광주 상무체육공원) • 2011년 제11회 5·18마라톤대회시 오리소비촉진(5. 21. 광주 상무시민공원) • 2011년 충북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 참여 (9. 23. 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옛대농부지) • 해남 명량대축제 오리소비촉진 시식회 (10. 1. 토.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 • 청원생명축제시 오리소비촉진 시식회 (9. 30~10. 9. 10일간. 오창과학단지내) • 201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식회 • 제16회 나주시 농업인의날 오리시식회 (11. 11. 금. 나주 영산강 둔치공원) • 음성 설성문화제 오리소비촉진 시식회

2011년도 오리 자조금사업 추진사항

• 교육 (목)

사업명(세목)	사업추진내역
오리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교육	• 나주시지부 오리산업 및 질병예방 교육 및 관련 홍보 ('11.3.10. 나주 영산포 축협)
오리산업 생산 및 유통 투명화 계도	• F1 불법 입식 농가 전국 조사 및 계도 - 전국 종오리 농장 및 부화장 일제 조사 • 유통감시원 활동비 지급 - 전국 오리오리전문점 원산지 표시시행 확인 및 계도

(3) 조사연구사업(항)

• 연구용역 (목)

사업명(세목)	사업추진내역
오리육 이용 가능성 육가공 제품 개발연구 사업 (한식연 공동)	• 3차년도 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비 및 현물 지원

(4) 자조금 운영(항)

사업명(세목)	사업추진내역
자조금 사무관리자 인건비 보조	• 자조금 사무관리 인건비 보조
회의 비용	• 2011년 오리지조금관리위원회 등 개최 관련
기타 경비	• 자조금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등

※ 2011년 오리지조금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수입	지출	내역	계획	수입	지출	내역	계획
자체거출금	360,392	360,348	100.0	소비촉진홍보	399,000	275,896	69.1
정부보조	390,000	390,000	100.0	교육및정보제공	356,000	218,753	61.4
이월금	49,608	49,608	100.0	조사연구사업	15,000	15,000	100.0
잡수입(예금이자)		44		운영비	30,000	5,470	18.2
				2012년 이월집행		284,881	
계	800,000	800,000	100%	계	800,000	800,000	

2012년도 오리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추진목표〉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홍보활동을 통한 수급상황 타개

- 물량과잉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급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시세의 급격한 하락과 재고물량이 크게 증가
- 이같은 현상이 최소 201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비촉진활동을 통한 수급 조절 및 산업 정상화 시급
 - 가정소비 확대를 통한 안정적 판매처 확보

*국내산 인증사업 중점 추진

- 2011년 오리고기 수입물량이 2010년 대비 크게 증가 (약 330% 증가)
 - 동남아산 오리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중국산 오리고기 대거 수입
 - 정부에서 협상준비중인 한·중 FTA에 대비,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국내산 인증사업 체재 구축
 - 인증제도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사업 추진

2012년도 오리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2012년도 오리 자조금사업 계획(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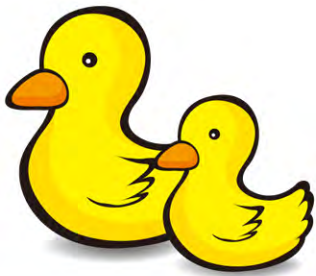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계정(항)	단위사업(목)	내용	2012년	비율(%)	자담	보조
		세부사업(세목)				
1. 소비홍보	1. 광고	소비홍보 소계	220,000	25.9	112,500	112,500
		영상 및 지면 등 직접 광고	100,000	11.8	50,000	50,000
	2. 소비촉진	오리고기 소비촉진 관련 행사	50,000	5.9	25,000	25,000
		오리고기 시식 및 홍보	40,000	4.7	20,000	20,000
		소비홍보용 홍보물 제작	30,000	3.5	15,000	15,000
2. 교육 및 정보제공	1. 정보제공	교육 및 정보제공 소계	205,000	24.1	100,000	100,000
		PPL을 통한 국내산 오리육 관련 정보 전달	80,000	9.4	40,000	40,000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오리고기 우수성 관련 정보제공	40,000	4.7	20,000	20,000
		자조금 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30,000	3.5	15,000	15,000
		자조금 거출 필요성 언론매체 정보제공	5,000	0.6	2,500	2,500
	2. 교육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지원	20,000	2.4	1,000	1,000
		오리인의 날 및 한국오리협회 20주년 기념식 개최	30,000	3.5	15,000	15,000
3. 유통구조 개선	1. 유통개선	유통구조 개선 소계	255,000	30.0	127,500	127,500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000	1.2	5,000	5,000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 CI, 네이밍 공모전 및 선포식 개최	15,000	1.8	7,500	7,500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 홍보관련	200,000	23.5	100,000	100,000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 관련 설명회 및 대상업체 교육	10,000	1.2	5,000	5,000
		현지실사단 운영비	15,000	1.8	7,500	7,500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 기타 업무추진	5,000	0.5	2,500	2,500
4. 조사연구	1. 조사연구 응역	조사연구 소계	35,000	4.1	17,500	17,500
		오리산업 관련 연구응역(과제 별도 선정)	35,000	4.1	17,500	17,500
5. 운영관리		운영관리 소계	35,000	4.1	17,500	17,500
	1. 급여	자조금 사무관리자 인건비 보조	24,000	2.8	12,000	12,000
	2. 회의	회의비용	4,000	0.5	2,000	2,000
	3. 기타경비	각종 경비	7,000	0.8	3,500	3,500
6. 예비비			100,000	11.8	50,000	50,000
합계			850,000	100.0	425,000	425,000

* 현재 자조금위원회 의결 및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요청 중.

1/4분기 오리 자조금사업 추진현황

(2011. 12 ~ 2012. 2 기준)



2011년 연말연시 오리고기소비촉진 전단지 제작·배포

우리협회는 2011년 12월 연말연시 오리고기소비촉진을 활성화하는 전단지를 제작, 회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전단지는 국내산 오리고기 홍보대사 개그맨 박준형·김지혜 부부를 모델로 활용하여 시선을 끌게 하였으며, 전단지 앞면은 국내산 오리고기 홍보대사 부부가 '연말연시, 회식메뉴로 덕뿐입니다!' 라는 팻말을 들어 각종 모임 메뉴로 오리고기를 추천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뒷면에는 다양한 오리오리 그림과 함께 각종 모임과 회식메뉴로 오리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오리고기의 효능을 담았다.



한국일보 주최 거북이마라톤대회에 오리고기 협찬

우리 협회는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한국일보사에서 매월 주최하는 거북이마라톤 대회에 오리고기세트를 협찬하고 있다. 거북이 마라톤대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른 아침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열리고 있다. 거북이 마라톤대회에 협찬된 오리고기세트는 행사 말미 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되며, 오리고기의 우수한 효능과 특징 또한 소개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오리고기세트 협찬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전 7시 ~ 11시
- 장소 : 남산 국립극장 앞



협회, 오리고기 리플렛 제작

우리 협회는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리플렛을 제작, 회원 및 소비자에게 배포하였다. 리플렛은 국내산 오리고기 홍보



보대사 개그맨 박준형·김지혜 부부를 모델로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테마별로 알리도록 제작되었다. 첫 번째 테마는 스테미나 식품의 절대강자로 오리고기가 왜 건강한 고기인지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테마는 오리고기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디톡스 식품(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요법)임을 알리며, 오리고기는 건강한 몸매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임을 홍보하고 있다. 마지막 테마는 '국내산으로 지키자, 안심 밥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 홍보도 함께 이뤄지도록 하였다.

장흥군지부, 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 실시



우리 협회 장흥군지부(지부장: 서병갑)는 지난 2월 5일(일), 「장흥군 제7회 정남진 마라톤 대회」에서 오리고기 소비촉진 무료시식회를 열어 국내산 오리고기 우수성을 알렸다. 서병갑 지부장은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모인 대회에서 오리고기 무료시식회를 열어 오리고기의 영양적 우수성과 맛을 홍보했으며, 반응 또한 매우 좋았다”며, “향후 행사에는 대중적인 훈제오리고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오리고기의 맛을 선보여 오리고기의 다양성을 홍보하고 싶다.”고 밝혔다.

- 일시: 2012년 2월 5일(일)
- 장소: 전남 장흥군 예향교 밑

2012년도 제1회 오리자조금위원회 성료

우리 협회는 2월 17일(금)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1회 오리자조금 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오리자조금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위원 구성과 함께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부위원장에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원장, 감사에 정정우 위원(사육분과위원장·축림농장 대표)과 이우진 위원(감사·주원산오리대표)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번 자조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자조금 사업으로 800백만원을 조성(정부보조금 포함)하였으며 2012년 사업계획은 총 예산 1,135백만원으로(이월금 포함) 오리산업 수급상황의 조속한 타개와 국내산 오리 인증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전 위원들이 의무자조금 시행을 하루 빨리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추후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일시: 2012년 2월 17일(금), 13:30~
- 장소: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B1)



3~5월 오리 산지가격 전년대비 6,300~6,800원/3kg 전망

* 2011년 12월 산란 종오리 사육 마리수 전년대비 9.4% 증가

- 12월 산란 종오리는 전년대비 9.4% 증가한 65만 1천마리, 육성 종오리는 31.9% 증가한 20만1천마리(오리협회)
- 종오리 사육마리 증가로 오리고기 공급 증가 예상

* 3~5월 오리고기 총 공급량 5.4% 증가 전망

- 3~5월 도입 증가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3만2천톤 전망
- 수입량 감소 불구 생산량 증가로 3~5월 오리고기 총공급량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3만3천톤 전망

* 3~5월 오리 산지가격 전년대비 약세 전망

- 경기 불황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
- 공급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3~5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32~37% 하락한 6,300~6,800/3kg원 전망

2011년 12월 오리 사육 마리수 1,274만마리

오리 사육동향과 전망

* 2011년 12월 오리 사육 마리수 1,274만마리

- 2011년 12월 오리 사육 마리수는 1,274만마리였으며, 이중 종오리는 153만 마리였다(통계청).
- 12월 폐킨종 암컷 기준의 산란종오리는 65만1천마리(전년대비 9.4% 증가), 육성종오리는 마리수는 20만1천마리(31.9% 증가)이었다(오리협회).

* 2011년 4분기 종오리 수입 전년 대비 156.0% 증가

- 2011년 4분기 종오리 수입 마리수는 전년 대비 156.0% 증가한 13만 6천마리였다.
- 올해부터 국내 원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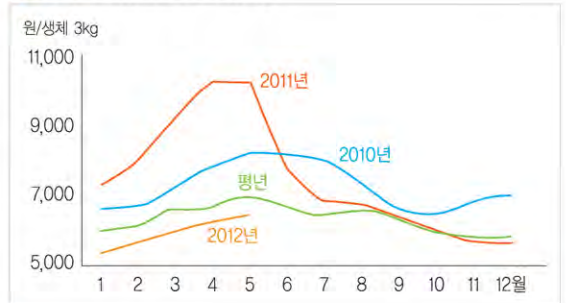
* 1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대비 1.2% 증가

- 2012년 1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5만2천톤이며, 2011년 11월(65.3%), 12월(10.2%)보다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이다.
- 산란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7.1% 상승한 반면, 육용오리는 0.3% 증가했다. 따라서 2월 도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3월 이후 도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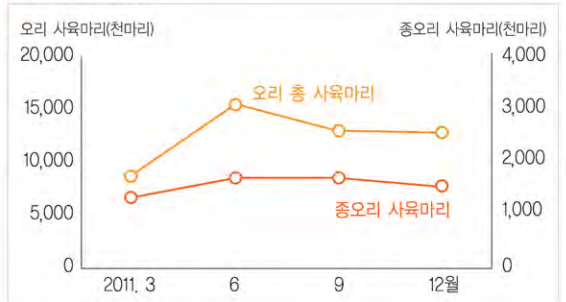
◆ 3~5월 오리고기 총공급량 전망 (단위: 톤)

구분	국내생산(A)	수입(B)	총공급량(A+B)
2012년 3~5월	32,417	122	32,539
2011년 3~5월	30,162	710	30,872
증감율	7.5%	-82.8%	5.4%

◆ 오리 산지가격 추세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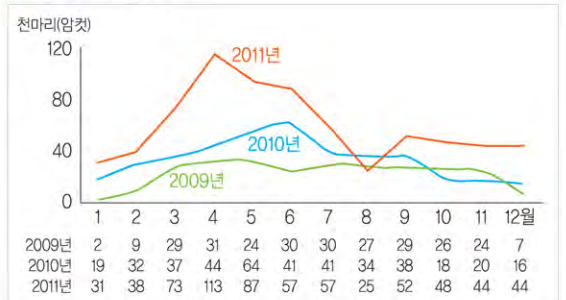


◆ 오리 사육동향



※ 자료 : 통계청

◆ 종오리 수입동향



※ 자료 : 한국오리협회

◆ 오리 생산성 현황

구분	출하일령(일)	출하체중(kg)
2011년 2월	44.2	3.25
2012년 2월	43.2	3.36
증감률	-2.3%	3.4%

※자료 :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3~5월 오리고기 공급량 전년대비 증가

* 전년대비 육용오리 생산성 호전

- 기상상황 호전으로 2월 출하일령은 43.2일로 전년(44.2일)보다 앞당겨졌으며, 출하체중은 전년대비 3.4%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공급 및 전망

* 1월 도입 마리수 전년대비 3.5% 증가

- 1월 도입마리 수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536만마리였다. 종오리 사육마리수 증가로 3~5월 도입 마리수는 1,965만마리로 전년대비 7.5% 증가할 전망이다.

* 2011년 4분기 오리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48.6% 감소

- 2011년 4분기 오리고기 수입량(정육·지육 기준)은 전년대비 48.6% 감소한 59톤 이었다. 전년대비 산지가격 약세상황이 지속되면서 향후 오리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오리고기 공급량 전년대비 5.4% 증가 전망

-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로 3~5월 오리고기 공급량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3만2,539톤으로 전망된다.

◆ 오리고기 총공급량 전망

(단위 : 톤)

구분	국내생산(A)	수입(B)	총공급량(A+B)
2012년 3~5월	32,417	122	32,539
2011년 3~5월	30,162	710	30,872
증감율	7.5%	-82.8%	5.4%

*주 : 2012년 3~5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5월 오리 산지가격은 6,300~6,800원 전망

오리 가격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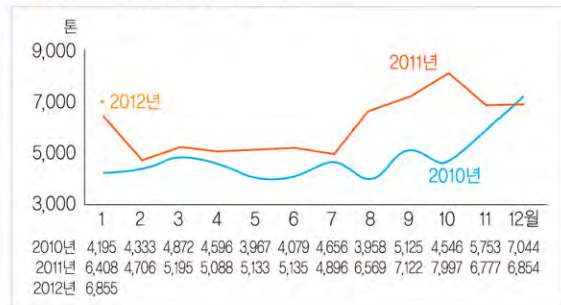
* 오리 산지가격 전년대비 하락세

- 2월 현재(23일 기준)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16.6% 하락한 5,625원/생체 3kg(전월대비 4.9% 상승)이었다.

* 3~5월 산지가격은 6,300~6,8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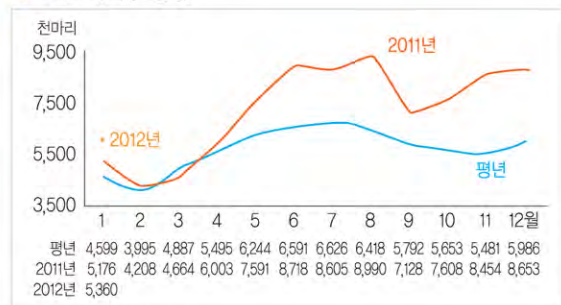
- 공급량 증가 및 수요 감소로 3~5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32.1~36.5% 하락한 6,300~6,800/3kg원으로 전망(2월 대비 12.0~20.9% 상승)된다. 🌈

◆ 산란오리 배합사료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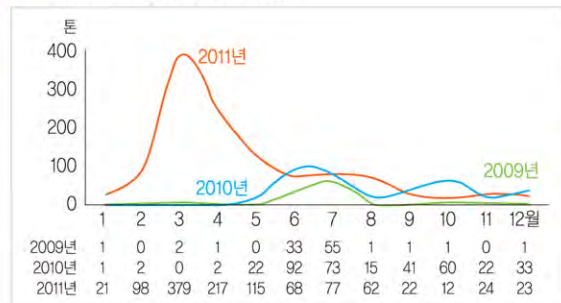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도입 마리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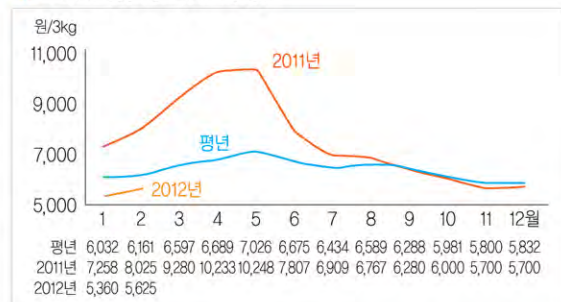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오리고기 수입 동향(검역기준)



*주 : 수입량은 정육·지육 기준임.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오리 월평균 산지가격 동향



*주 : 평년은 2007~2011년의 가격 중 최대·최소를 뺀 평균. ※ 자료 : 한국오리협회(월 평균가격)



KBS2 여유만만 2월 1일 방영분

암을 이겨낸 스타들이 선택한 건강 식단 탤런트 홍여진, 오리고기로 유방암 이겨내



암의 종류별로 발생 이유가 다르지만
식습관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오한진 박사] 암이 왜 생기는지 완벽한 원인은, 그렇지만 암의 종류별로 발생 이유가 다르지만 식습관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짠 음식과 탄 음식이 큰 원인이 되고요, 유방암은 지방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유방암은 지방이 큰 영향을 끼침

똥똥하거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 많이 발병되고요, 식습관과 암 유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암 발병의 큰 원인입니다.

[탤런트 홍여진] 암 치료후, 이것이 좋다는 말에 자주 먹고 있어요.

[방송인 조영구] 왜 이것을 자주 먹게 되었어요?



유방암은 지방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이셨었어요.

[탤런트 홍여진] 네,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방암 발병은 지방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이셨었어요.

[조우중 아나운서] 어? 여기서 힌트 나왔어요, 돼지고기 비슷한 거 맞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기름진 돼지고기

[탤런트 홍여진] 음~ 좀 비슷하지만 성분이 완전히 다르죠.

[황수경 아나운서] 어렸을 때는 돼지고기를 좋아했지만 돼지고기를 대체해서 이것을 드셨다는 말이죠?

[탤런트 홍여진] 네.



유방암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자주 먹게 된 음식

[방송인 조영구] 이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 건강에 더 좋다는 말이죠?

[탤런트 홍여진] 그렇죠.

[방송인 조영구] 유방암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자주 먹게 되셨어요?



피속의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산소 공급을 늘리는 음식의 효능!

[탤런트 홍여진] 네, 꼭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어려서 지방을 많이 먹어서 유방암에 걸렸듯이 제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음식이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없애 주고 산소 공급을 해줘요.

[조우중 아나운서] 홍여진씨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 먹은 비밀의 음식 재료는 바로 오리입니다!



[오한진 박사] 오리고기는 예전부터 기름이 많은 음식으로 알고 계시죠? 오리는 그냥 두어도 끓여도 기름이 많이 달라요. 오리는 닭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오리기름은 닭 기름과 달라요. 오리기름의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굳지 않는 좋은 기름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많은 기능을 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껍질을 만드는 등 우리 몸에 도움을 줘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리고기의 기름은 도움이 되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암 환자분들은 회복 과정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 거죠.

[방송인 조영구] 오리고기는 하나도 버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진 박사] 뭘 버리세요~ 다 드셔야죠. 오리고기 기름은 혈액에 응고가 안 돼서 좋은 겁니다.

아프기 전에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고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다는 홍여진씨. 하지만 이제 냉장고 안은 각종 채소들과 고기, 생선들로 가득한데요. 투병 이후 면역력과 체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이후 저염분 고단백 식단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소개할 요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로 만드는 오리 불고기 덮밥!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고추장과 간장, 들기름, 매실청, 깨소금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여기에 준비해둔 오리고기를 넣고 잘 버무려 주는데요~ 오리고기의 간이 베일 때 까지 약 10분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 함께 넣을 채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볶아 주면 되는데요. 이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탤런트 홍여진] 센 불에 빨리 볶아야 해요. 그래야 타지 않아요.

오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 미리 손질해둔 채소를 넣고 함께 볶아 주면 되는데요. 이때 채소는 너무 익히지 말고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익혀야 식감이 좋습니다.

[탤런트 홍여진] 저처럼 한 번 아프고 나서 생각을 고치려면 그뻔 늦어요. 식생활의 10% 정도만, 조금씩만 변화해도 그게 점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나 스스로 먹는 식생활을 통해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SBS 강심장 115회 1월 31일 방영분

개그맨 이윤석, 한의사 아내와 사는 법 공개 “건강 생각해 오리를 3년 짜 먹고 있다.”

아내는 저의 건강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보니깐 몸에 해로운 음식들은 절대 못 먹게 해요.
오리를 3년 짜 먹고 있어요! 그것도 데치고 굽고, 하는 게 아니

고 일체의 인공조미료도 넣지 않고요. 제가 볼 때 불만 됐어요, 오리에!! (하하하)



KBS 뉴스9 1월29일 방영분

KBS 뉴스광장 1월30일 방영분

날개 돋친 오리고기... 역대 소비량 최고 생산이 수요 못따라가... 시설현대화 필요



남이 먹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는 옛말이 보여주듯 오리고기는 보양식으로 꼽히는데요.

오리고기가 날개 돋치듯 팔리면서 지난해 소비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이윤희 기자] 대기 순번 92번,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보는 건 오리 고깃니다.

생 오리구이에 오리 녹두죽, 여름 보양식이란 인식부터 달라졌습니다.



[손님] “예전에는 보양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맛이 좋아서 찾아요”





오리 가공식품 판매도 호조세... 특히 훈제고기 선호도가 높습니다.

[김대식(오리 가공공장 대표)] “참나무로 훈연을 시켜서 (오리) 특유의 냄새를 제거해서 우리 입맛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03년 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당시 급격히 줄었던 오리 소비량은 최근 7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건강식품이란 인식이 확산된데다, 2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메뉴 개발도 소비 심리를 되살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제는 대형마트에서도 오리고기를 주요 정육상품으로 판매할 만큼 가정 내 소비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농가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배(오리 농가 주인)] “(오리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육하는 중국이 FTA 체결로 개방화된다면 국내 사육 농가는 거의 좌초하고 말겁니다.”

도약기를 맞은 오리 산업, 소비 증대에 맞춰 시설 현대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블로그 : 꼬꼬네 맛있는 이야기
<http://blog.naver.com/cocodoc>

새콤달콤 파인애플 탕수 오리

온 국민이 즐겨먹는 국민 중화요리. 바로 탕수육인데요.
이 탕수육을 돼지고기가 아닌 오리고기로 만들면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거기에 오리고기 특유의 쫄쫄한 식감 때문에 맛도 훨씬 좋답니다.

또 요즘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오리고기' 인기가 좀더라고요.
우리가족들도 오리고기 무척 사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요리는 '파인애플 탕수 오리'예요.
오리고기를 바삭하게 튀겨서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아주 별미입니다.
그럼 오늘 이 '파인애플 탕수 오리' 함께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



6



7



8

재료

생오리슬라이스(400그램), 맛술2큰술, 소금, 후추, 생강즙 또는 생강가루 약간, 전분1컵 정도, 달걀흰자1개, 식용유, 파인애플3쪽(통조림용 사용), 양파1/2개, 피망1/2개, 청·홍파프리카1/2개씩

소스

물1컵, 파인애플 통조림국물1/2컵, 간장4큰술, 설탕4큰술, 케첩2큰술, 매실청4큰술, 식초2큰술, 전분(전분가루3큰술:물3큰술)

만드는 방법

- 1 오늘의 주인공! '오리고기' 예요.
요즘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파는 것들이 있어서 먹기 편하더라고요.
이걸로 로스구이도 해 먹고, 김치랑 같이 구워 먹어도 좋고...
- 2 오리고기는 밀간을 해줍니다.
맛술, 소금, 후추 그리고 생강즙이나 생강가루를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해 놓으세요.
이정도 밀간만 해 놓으면 오리특유의 잡내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 3 탕수소스에 들어갈 부재료들을 같은 크기로 손질해 놓습니다.
- 4 탕수소스를 만들겁니다.
분량대로 국물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 5 소스국물이 끓어오르면 부재료를 모두 넣어서 포르르~ 끓여 주세요.
국물이 포르르~ 끓어 오르면 불을 줄이고 전분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 줍니다.
어느정도 농도인지는 아시죠?
중국집에서 파는 탕수육소스의 농도처럼~
탕수소스는 이제 마무리 되었구요.
- 6 이전 얼른 오리고기를 튀겨서 소스를 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밀간을 해 놓은 오리에 계란흰자1개랑 전분가루 1컵 정도를 부어서 조물조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삭하게 튀겨 내시면 돼요. 2번 튀기셔야 바삭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 7 바삭하게 튀겨낸 오리고기를 완성접시에 담아냅니다.
이때 맛을 보시면..바삭하고 고소~한 맛의 오리고기를 만날 수 있답니다.
- 8 새콤달콤하게 완성된 파인애플 탕수소스를 담아내서 완성!
드디어 '파인애플 탕수오리' 완성입니다.^^
그렇듯~ 하지 않나요??
오리고기의 바삭함이 느껴지시나요?
아주 잘 튀겨졌습니다. 튀겨지면서 기름이 쪽~ 빠졌어요.
탕수소스도 반지르르~~하게 잘 만들어졌구요.
탕수오리에 파인애플을 곁들였더니 맛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른 재료도 향이 좋아서 '오리튀김' 이랑 잘 어울리지만~
파인애플이랑 함께 먹을 때 풍미가 가장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할만한 특별 보양음식이 될 만 하겠죠?



TIP

오리고기의 효능

1. 오리고기의 '불포화지방산'은 피부건강에 좋아요. 피부조직에 콜라겐을 공급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해줘요.
2.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는 기력회복에 좋아요.
3. 오리고기의 불포화지방산은 어느 육류보다 월등해요. 그리고 칼슘, 철, 인, 비타민C, B가 풍부해서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혈관질환예방에 좋아요.



中國 ‘오리고기→A급 짝퉁 양고기’ 둔갑 충격

최근 중국에서 오리고기에 화학재료를 첨가해 짝퉁 양고기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 먹거리 논란이 재점화 됐다. 31일 신화통신 인터넷판에 따르면, 다롄시(市) 공안과 상업부 관계자들은 사허커우구(區)의 한 무허가 영업소에서 오리고기를 최상급 양고기라고 속여 팔아온 일당의 범죄현장을 공개했다.

당시 현장을 찾은 한 관계자는 “도저히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더럽고 어두운 환경이었다.”면서 “컴컴한 실내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염화암모늄이 가득 든 봉지를 발견했는데, 이를 기름 안에 넣은 뒤 오리고기를 넣고 찌내 오리고기 냄새를 없애고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랫동안 염색제에 담근 오리껍질과 오리고기를 갈아 반죽한 뒤 양고기가 그려진 종이상차 안에 냉동한 채 포장해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안은 화학약품에 절여 A급 양고기로 둔갑시킨 오리고기가 인근 사브샤브가게와 시장에 두루 팔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거한 100kg에 달하는 가짜 양고기는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사허커우구 관계자는 “얇게 썬 양고기를 물에 데치면 시간이 지나도 맑은 물이 나온다. 만약 양고기를 데쳤을 때 물이 검게 변한다면 가짜인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짜 계란, 소고기, 햄, 분유, 식용유 등에 이어 가짜 양고기까지 등장하면서 중국 시민들의 먹거리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니우뉴스 송혜민 기자 kimus@seoul.co.kr



英國, 오리모양 감자 발견... 먹기에 아까워

영국의 한 젊은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오리와 똑 같은 모양의 감자를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에밀리 게프니(21)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감자가 오리와 너무 비슷해 아직까지 먹지 않고 있다.

게프니는 이 감자가 오리의 날개, 부리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감자에 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룸메이트들에게 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다.

영국 사우스웰스 카디프에 거주하는 게프니는 “감자가 오리와 너



무나 흡사하다”며 “다리 부분이 없지만 이 감자에 애착이 크다”고 말했다. 게프니는 또 “처음에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며 “저녁식사에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2009년에도 오리모양의 감자가 우연히 발견된 바 있다. 🌈

뉴스시 권성근 기자 ksk@newsis.com

2011년도 오리지조금 거출(납부) 현황 ▶▶

2012. 03. 05기준 (단위 : 원)

연번	납부자		납부금액					계
	상호	대표자명	계열유통부분	부화부분	사육부분	임원분담	특별	
1	(주)코리아더카드	박영진	19,000,000				11,000,000	30,000,000
2	(주)주원산오리	이우진	19,000,000			1,000,000		20,000,000
3	(주)신선산오리	하인목	19,000,000					19,000,000
4	(주)모란식품	김만섭	13,500,000			1,000,000		14,500,000
5	(주)삼호유황오리	이세종	13,500,000			1,000,000		14,500,000
6	(주)정다운	이영	13,500,000			1,000,000		14,500,000
7	(주)팜덕	문순금	1,000,000				9,000,000	10,000,000
8	(주)유성농산	이춘길	10,000,000					10,000,000
9	성실농장	김상덕	8,000,000			1,000,000		9,000,000
10	(주)자연일가	김총석	7,000,000					7,000,000
11	(주)엘로우덕	오정수	5,000,000					5,000,000
12	(주)청산식품	안희복	1,000,000			1,000,000		2,000,000
13	(주)베델농산	김성자				1,000,000		1,000,000
14	(주)이목원	장현성	1,000,000					1,000,000
15	청산오리농장	안희백	1,000,000					1,000,000
16	수군농장	변영득				1,000,000		1,000,000
17	모리식품	배상구	1,000,000					1,000,000
18	삼오식품	정재우	1,000,000					1,000,000
19	태능오리유통	백락훈	400,000					400,000
20	혜성	정태순	200,000					200,000
21~288	사육회원	267명			18,690,000			18,690,000
289	은수네농장	노태영		1,500,000				1,500,000
290	무주부화장	임춘배		1,200,000				1,200,000
291	황아부화장	이재석		8,400,000				8,400,000
292	성호부화장	손윤권		7,800,000				7,800,000
293	부성축산	이덕행		6,000,000				6,000,000
294	희망부화장	정약희		4,200,000				4,200,000
295	대성농장	박상삼		2,100,000				2,100,000
296	인원부화장	박성철		3,300,000				3,300,000
297	화이트덕	이진		6,000,000				6,000,000
298	덕신영농조합법인	양성현		5,280,000				5,280,000
299	다복솔부화장	김민수		3,600,000				3,600,000
300	코리아덕	양태식		2,160,000				2,160,000
301	해바레축산	이창주		5,400,000				5,400,000
302	원천부화장	마낙중		1,500,000		1,000,000		2,500,000
303	행운부화장	이경열		3,000,000				3,000,000
304	진성축산	김진성		2,100,000				2,100,000
305	경주부화장	오점근		3,300,000				3,300,000
306	남양부화장	이경주		1,800,000				1,800,000
307	화정축산	고선주		7,800,000		1,000,000		8,800,000
308	명바위농산	김흥기		1,080,000				1,080,000
309	영양축산	홍성대		2,400,000		1,000,000		3,400,000
310	울참	송관경		1,200,000				1,200,000
311	신북부화장	류경열		3,900,000				3,900,000
312	능골오리농장	김춘한		450,000				450,000
313	노안부화장	이명규		1,050,000				1,050,000
314	대추부화장	범희용		300,000				300,000
315	윤태농원	이형임		2,250,000		1,000,000		3,250,000
316	김민혁	김민혁		1,500,000				1,500,000
317	쌍둥이부화장	김기용		3,600,000				3,600,000
318	솔잎부화장	차준열		2,400,000				2,400,000
합계			134,100,000	96,570,000	18,690,000	12,000,000	20,000,000	281,360,000

※ 자조금 납부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2년 자조금 거출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산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덕 가 Duck 덕 가 Duck

“가족 건강을 위해 먹거리를 사수하라!”

알고 보면 주부9단, 김지혜의 선택은 바로 국내산 오리고기.

우리땅, 우리물로 깨끗하게 키우고 HACCP* 인증으로

까다롭게 관리하니까, 맛은 물론 품질까지 믿을 수 있죠.

간간한 우리 남편도 겸백!

먹거리만큼은 똑 부러지게 챙기는 당신에게는,
대한민국 덕(Duck)뿐입니다.



*HACCP :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

오리홍보대사 : 개그맨 박준형, 김지혜 부부